

제4 † ‘언어’라는 생물에 대하여Ⅱ

cf. 김준태의 시 「 」 감상

- 미학적 인식이 키지는 작품 사례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셨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 []

철없이 뛰놀던 유년 시절, , 그리고 이제는 생활의 무거운 짐과 함께
세속화된 삶을 살고… 4

하지만 이 시의 액센트는 미래의 자신에 대한 회의와 자조가 짙게 밴 마지막 행. 이 구절이
아니었다면 이 시의 긴장감은 반감되었을 것이다. “ ” †는 행위를 중심에 놓고 시를 전
개하는 방법은 민요를 방불케 하는데,

1. 살아 있는 언어와 냉장된 언어

- 1) : , - 설득이 목표
2) : , - 감동이 목표
3) < > | 모티브
a. 유인호의 사회과학 논문
b. 시적 사례들
- 기용악의 「 」
- 「 」
- 김용택의 「 」

2. : 영화와 만화와 시의 비교

- 1) : 능동과 수동
2) : 표현 영역의 차이

cf. 김지하의 시 「 」 감상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 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욱소리 호르락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호느끼며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cf. : 《 》 《 》 =)
cf. 김남주 시 「 」

* : 파블로프의 실험
- “ ” .

3. , , 형상적 사유

1) ?
2) : , 말하지 않고 말하기

cf. < >
- / 작곡 백형호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탄 님 /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 있던 길 / 한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삽구나 /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 적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만치서 / 빼꾹새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삽구나

- 조세희의 『 』
 - 고리키의 『 』

3) ?

* 문학이 시대의 곤혹과 딜레마를 드러내는 방식

cf. 「 」 근현대 소설 대표작
- < 1> 중 박유복과 쇠도리께 꽈오주의 싸움 장면

유복이가 언덕 위에서 내려와서 총각과 마주쳤다.

“네가 떼밀기를 잘한다지.”

“너는 별놈이냐?”

“아무더러나 함부루 도둑놈이라구.”

“도둑놈의 양값음해 주리 온 놈두 도둑놈이겠지.”

()

“이놈아, ? ?”

“지기는 왜 쳐.”

“이놈, . . .”

“내가 뜻이 마려우니 뜻 좀 누구.”
총각이 두 팔을 뒤로 짚고 얼굴을 젖혀들고 두 눈을 씨끗째끗하며 유복이를 치어다보니 유

복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럼 어서 가서 누구 오너라.”

“가기는 어디루 가.”

총각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으며

“이놈아, !”

“개 앞에서나 누는 범인가.

“무명 놓은 저 길가에 가서

“괜히 낭떠러지루 떠다닐게.”

“그렇게 겁이 나거든 언덕 밑에 가서 누려무나.”

“저기 앉은 오가가 내려와서 덮치기 좋으라구.”

“그 자식 의심은 되우 많네.”

총각이 끙끙 소리를 지르느라고 말대꾸가 없었다.

“어 구리다.”

하고 유복이가 뒤로 물러나서니 총각은 예사로

“누는 사람두 있을라구.”

하고 한 자리 옆으로 옮겨앉았다.

“쇠새끼 쇠똥 누는 것 구경하구 있지 말구 이리 올라오게.”

하고 오가가 소리쳐서 유복이가 언덕 위로 가려고 할 제 총각이

“나는 내기 고만두구 갈 테다.”

하고 낙엽을 집어 밑을 닦고 일어섰다. 유복이가 돌쳐서며

“이놈아, . ?”

하고 총각의 앞으로 나왔다.